한주간 쉽게 보는

국내 미래산업 연구 및 정책동향

Domestic Future Industry Research and Policy Trends

No. 90

JRI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 www.jri.re.kr

Contents

※ 2025.07.31.(목) 기준(대상 기간 : 2025.07.24.~2025.07.30.)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1

▪ 탄소중립 분야 1

- 산자부, 탄소중립 산단 대표 모델 구축 (2025.07.28) ····· 1
- 안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2025.07.30) ····· 1
-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리빙랩 '화성 기후지킴이' 모집 (2025.07.30) ····· 2
- 인천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목표로 녹색도시 전환 추진 (2025.07.30) ····· 2
- 전남도, 국제기후에너지포럼에서 탄소중립·해상풍력·RE100 논의 (2025.07.30) ····· 3
- 성북구, 에너지 삼행시 짓기 이벤트로 2050 탄소중립 실천 앞장 (2025.07.30) ····· 3
- 강서구, 텀블러·세척기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 노력 (2025.07.30) ····· 4
- 함안군, 숨은 자원 모으기로 탄소중립 앞장 (2025.07.30) ····· 4
- 부산시,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확정으로 탄소중립 실현 (2025.07.29) ····· 5
- KG모빌리티커머셜 군산 제2공장, 태양광 발전으로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앞당기기 (2025.07.29) 5
- 수영구,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과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체험 추진 (2025.07.29) ··· 6
- 평택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부문 대상 수상 (2025.07.29) ····· 6
- 청주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탄소중립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5.07.29) ····· 7
- 안양시, 어린이 대상 탄소중립 주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2025.07.29) ····· 7
- 김제시, 수소승용차 시승 체험 행사로 2050 탄소중립 달성 추진 (2025.07.29) ····· 8

- 원주기후변화홍보관, 여름방학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5.07.29) ····· 8
- 김명회 당진시의원, 의류 자원순환 정책이 탄소중립도시의 필수라고 강조 (2025.07.29) 9

▪ AI 분야 10

- 상반기 AI 일자리 매칭 8.7만명 취업으로 월급도 더 높아 (2025.07.24) ····· 10
- 김원이 산자위 간사, AI 산업대전환·지산지소 RE100 산단 동시 추진 (2025.07.24) ·· 10
-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디지털·AI로 진짜 성장 설계하며 소상공인 회복 최우선 (2025.07.24) ·· 11
- 하남시, AI 기반 불법통행 단속관리 주민참여조직 스스로해결단 출범 (2025.07.24) ···· 11
- 인천시, 주안·부평산단 AI 실증산단 구축 본격 추진 (2025.07.24) ····· 12
- 정성주 김제시장, 피지컬 AI 농업관련 산업에서 김제가 최적지라고 주장 (2025.07.24) ·· 12
- 서울 119 신고, AI 콜봇이 즉시 처리 (2025.07.24) ····· 13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14

▪ 탄소중립 분야 14

- 수자원공사, EU 호라이즌 유럽 탄소중립도시 과제 수행 (2025.07.30) ····· 14
- 전기안전공사, 반바지 출근 캠페인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5.07.29) ····· 14
- 기보, M&A·탄소중립 전략 모색 및 호우 피해 지원 워크숍 개최 (2025.07.24) ····· 15

▪ AI 분야 15

- 생성형 AI가 직업상담하는 시대 도래 (2025.07.24) ····· 15
- 화학·금속·세라믹·섬유 데이터 표준화로 AI 기반 소재 개발 속도 향상 (2025.07.24) 16

- GICON, 생성형 AI 실무 제작 워크숍 성료 (2025.07.24) ····· 16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17

▪ 탄소중립 분야 17

- LG, 탄소중립과 자연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며 ESG 경영 강화 (2025.07.28) ····· 17

▪ AI 분야 18

- 최태원 SK그룹 회장, AI 올인으로 글로벌 협력 미래성장동력 확대 (2025.07.24) ····· 18
- 현대차, AI가 직접 기사 쓰는 나무 특파원 공개 (2025.07.24) ····· 18
- 데이터센터 냉각, 반도체 장비 등 AI 후방 산업 선점 나서 (2025.07.24) ····· 19
- 설립 1년만에 구글·알리급 AI 개발한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 (2025.07.24) ····· 19
- NOL, 애피어와 손잡아 광고 효율성 향상으로 AI 고객 맞춤 타겟팅 (2025.07.24) ····· 20
- 금고리조트 아시아나CC, AI드론 도입 등 친환경 골프장 도약 (2025.07.24) ····· 20
- 영산대, AI 창업 교육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2025.07.24) ····· 21
- 순천향대, K-ICT기업인연합회와 AI의료융합 산업 발전 협약 (2025.07.24) ····· 21
- 백악관, 미국 AI주도권 유지위한 AI행동계획 발표 (2025.07.24) ····· 21
- 머스크, AI에 총력으로 xAI 5년 내 H100급 5000만개 가동 목표 (2025.07.24) ····· 22
- 세계가 반한 한국판 소버린 AI로 AI 3대 강국에 더 가까워져 (2025.07.24) ····· 23
- 올트먼, AI 악용해 사람 사칭하는 사기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 (2025.07.24) ····· 23
- AI 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 직장인 평균 구매 금액 29만원 (2025.07.24) ····· 24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산자부, 탄소중립 산단 대표 모델 구축 (2025.07.28)** -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4일까지 '탄소중립 산단 대표 모델 구축 사업' 수행기관 공모 진행. 이 사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입주 기업의 에너지 소비 고효율화를 지원해 산단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프로젝트임 -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에너지 다소비 산단 한 곳에는 오는 2029년까지 국비 500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비 지원에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총 1천3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짐. 구체적으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에너지저장장치 발전소 건설, 재자원화 생태계 구축, 탄소 감축 기업 컨설팅,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친환경 설비 보급 등이 이뤄질 예정 - 이번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대표 모델을 구축하여 향후 전국 산업단지로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
지자체	□ **안성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2025.07.30)** - 경기 안성시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안성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 환경과 주관으로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원 등 5개 부문 15개 부서와 74개 세부사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추진 방향 논의 - 설명회에서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세부 사업 내용, 연차별 이행 점검과 성과 관리 방안 발표. 각 부서별 역할과 이행 과제를 공유하며 협력 체계 구축에 중점. 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목표로 행정 주도를 넘어 각 부서 주도적 사업 추진 계획 -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전 부서가 협력해 안성시 탄소중립 목표를 반드시 이루길 바란다"고 강조. 시는 실질적인 감축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리빙랩 '화성 기후지킴이' 모집 (2025.07.30)** - 화성특례시가 8월 8일까지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 리빙랩 시민참여단 '화성 기후지킴이' 50여 명 모집.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실현을 목표로 행정 일방향이 아닌 시민 직접 참여형 상향식 정책 실험으로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식 -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11월까지 약 4개월간 발대식, 최신 기술 트렌드 및 리빙랩 우수사례 교육,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 리빙랩 워크숍 3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 9월 '화성특례시 탄소중립 기념행사 MARS 151'에서 에코 화성인 선언문과 스마트도시 아이디어 발표 예정 - 모집대상은 동탄 일원 거주자 또는 동탄 지역 활동 중인 20세 이상 시민 중심으로 선발 예정.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스마트도시는 기술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시민 참여를 당부
	□ **인천시, 탄소중립 선도도시 목표로 녹색도시 전환 추진 (2025.07.30)** - 유정복 인천시장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목표로 녹색도시 전환을 추진하며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를 구축해 시민 참여 활동 기반 마련. 2045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시민 주도형 실천체계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민 실천 확산 캠페인에 돌입하며 전 세계 목표보다 5년 앞선 계획 수립 - 지난 6월 제30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범시민 탄소중립 실천본부 발대식을 열어 시민 참여형 실천 체계를 공식 출범. 유정복 시장과 정해권 의장, 도성훈 교육감, 황규철 회장을 공동대표로 106개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활동하며 8월 실무 협의체 구성으로 세부 실천계획 수립 예정 -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체계적 준비를 진행하며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과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 추진. 또한 승기천·굴포천·장수천·나진포천·공촌천 등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건강한 하천 환경 조성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전남도, 국제기후에너지포럼에서 탄소중립 · 해상풍력 · RE100 논의 (2025.07.30)** - 전남도가 30일까지 이틀간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제8회 국제 기후에너지 포럼'을 개최하여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춘 전남도의 방향을 모색.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 정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해법 공유 -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해상풍력 허브 조성, 기자재 클러스터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 RE100 산업단지와 기후에너지부 유치, 에너지 기본소득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 지역 균형발전의 문제로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된다"며 "전남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AI 슈퍼 클러스터와 RE100산단을 품은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조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
	□ **성북구, 에너지 삼행시 짓기 이벤트로 2050 탄소중립 실천 앞장 (2025.07.30)** - 성북구가 제22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을 맞아 43만 성북구민의 효율적인 에너지 생활 실천과 2050년 성북형 탄소중립 실현 동참을 위해 '에너지 삼행시 짓기' 이벤트를 개최. 에너지의 날은 2003년 8월 22일 최대 전력 소비 기록을 계기로 지정되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임 - 최근 폭염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전력 수급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성북구는 에너지 위기 극복과 효율적 에너지 사용 인식 확산을 위해 삼행시 이벤트를 기획.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 캠페인과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가장 적은 세대를 선발하는 탄소제로왕 이벤트에는 500여 명의 주민이 도전 - 이벤트는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접수받으며 네이버폼 신청 또는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접 방문 접수 가능. 환경 길라잡이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하여 GS편의점 5천원 상품권을 부상으로 지급하며 관련 문의는 성북구청 환경과에서 가능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강서구, 텀블러 · 세척기 보급으로 탄소중립 실현 노력 (2025.07.30)** - 서울 강서구가 자원절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생활 속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전개하며 텀블러 및 세척기 보급, 다회용기 지급, 종이 없는 회의 등을 추진. 청사 내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텀블러 1900개를 보급하고 구청 본관과 별관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여 위생적 사용 지원 - 친환경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다회용기 공급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지난해 허준 축제를 비롯한 지역 축제의 먹거리 부스에 약 46,190개의 재활용 가능한 다회용 그릇과 수저, 포크 등을 공급해 1회용품 사용을 크게 감축. 행사장 곳곳에 다회용기 반납 부스를 마련해 회수율이 약 91%에 달하며 폐기물 발생량도 크게 감소 - 종이 없는 회의 문화 조성을 위해 태블릿PC를 전 부서에 배포하여 각종 회의에서 종이 자료 대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인쇄 폐기물을 대폭 감축. 매주 월요일마다 1회용품 제로 강서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 방송을 송출하여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하며 민관이 힘을 모아 친환경 문화를 확산해나갈 계획
	□ **함안군, 숨은 자원 모으기로 탄소중립 앞장 (2025.07.30)** - 함안군새마을회가 주최하고 새마을지도자함안군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함안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 함안군 10개 읍면 256개 마을의 새마을지도자와 주민들이 참여해 마을을 청소하고 폐영농비닐, 농약병, 비료포대 등 영농폐기물과 헌옷, 폐지, 고철 등 자원을 수집하여 읍면별 실적 평가 - 수집된 약 50톤의 폐자원은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 및 재활용되며 수익금은 읍면 김장행사 등 이웃돕기 사업에 사용될 예정. 행사에는 석욱희 함안부군수,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 김재영 함안지방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자원 수집 현황을 점검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 - 강석광 회장은 "무더위에 동참해준 새마을가족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날로 심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운동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 새마을지도자함안군협의회는 2025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새마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건강새마을,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새마을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전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부산시,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확정으로 탄소중립 실현 (2025.07.29)** - 부산시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 '모두가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 함께 누리는 녹색미래, 빅 부산'을 비전으로 하는 이번 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법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기본계획 달성과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자립률 13.5% 달성을 목표로 공급 부문 21개, 수요관리 부문 53개 등 총 74개 사업을 수립.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는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2023년 대비 약 390% 확대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며 분산형 전원은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약 274% 확대 목표 - 에너지 수요는 2030년 부산지역 최종에너지 기준 수요 대비 15.3% 감축한 622만 TOE를 목표로 설정하고 온실가스는 2030년까지 2022년 대비 13.2% 감축한 2164만 톤 CO2eq를 목표로 설정. 박형준 시장은 "4차 첨단산업은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지만 전력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이 필요하다"며 녹색도시 부산 실현 의지를 밝힘
	□ **KG모빌리티커머셜 군산 제2공장, 태양광 발전으로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앞당기기 (2025.07.29)** - 새만금개발청이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군산 제2공장 지붕에 설치될 3.3MWp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했다고 발표. 올해 말까지 설치 공사를 마칠 예정인 이 설비는 연간 약 4,000MWh의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약 94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 - 친환경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은 생산된 전력을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는 전력은 판매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별도의 부지 없이 유휴 공간인 공장 지붕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번 사업은 새만금을 친환경 에너지 허브로 만들려는 전북자치도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그동안 수상 및 육상 태양광에 집중되었던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건물 지붕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다각화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게 될 전망. 김의겸 청장은 "이번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과 새만금의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고 평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수영구,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과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체험 추진 (2025.07.29)** - 부산 수영구가 지난 17~25일까지 관내를 권역별로 나누어 3개 동행정복지센터 및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100여 명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교육과 업사이클링 제품 만들기 체험'을 추진. 기후 위기와 환경, 생태, 지질에 대한 연관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체험 활동 진행 - 공장에서 기포 등 불량으로 전량 폐기되는 잠수복 원단을 업사이클링하여 구민들이 본인만의 파우치 및 크로스 가방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실시. 올해는 총 4번의 수업 중 1회는 수어 통역사와 동행하여 부산광역시농아인협회 청각장애인들과 일반 구민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체험 기회 제공 - 행사 관계자는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 점을 인식하여 구민 개개인 모두 성숙된 시민으로서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학습의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힘.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환경보호는 구민과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함
	□ **평택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부문 대상 수상 (2025.07.29)** - 경기 평택시가 '2025 한국의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발표. 이번 시상식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그 성과를 알리는 행사로 평택시의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이 높이 평가받음 -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평가에서는 평택시가 추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도시숲 조성사업 등이 높이 평가받음. 특히 스마트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춘 탄소중립 정책 등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주목 -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어워즈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은 평택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평택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청주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탄소중립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5.07.29)** - 청주시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난 5년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올해까지 6년 연속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보강과 창호 교체, 고효율 설비 등을 적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바꾸는 건축물의 체질 개선 사업임 - 2020년부터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77개 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며 올해 추가로 선정된 4개소에 대해서도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고 냉·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 -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시민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달성. 윤길용 청주시 공공시설과 공공건축2팀장은 "탄소중립은 정부도, 지자체도, 시민도 따로가 아닌 함께 이뤄야만 가능한 목표"라며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청주에서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 **안양시, 어린이 대상 탄소중립 주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2025.07.29)** - 경기 안양시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의 하나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29일부터 10일간 운영.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이론과 체험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 - 주요 프로그램은 대기오염에 대해 알아보며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공기는 안 괜찮아', 분리배출에 대해 관심을 높이는 '비닐로 만든 책갈피', 쓰레기 의미와 새활용에 대해 배우는 '너에겐 쓰레기? 나에겐 보물!' 등으로 구성. 프로그램 기간에 어린이들이 에너지의 원리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에너지 놀이터'를 함께 운영해 전시 관람과 체험 활동을 연계한 환경 교육 실시 - 프로그램은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안양그린마루'에서 진행되며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1층에 무더위쉼터를 마련해 시원한 공간과 물을 제공. 최대호 시장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김제시, 수소승용차 시승 체험 행사로 2050 탄소중립 달성 추진 (2025.07.29)**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수소승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29일 시청과 3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승 체험 이벤트 진행. 이번 체험 행사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는 시가 수소차의 실제 주행성능과 편의성 정숙성 친환경성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 - 이번에 체험할 '디올 뉴넥쏘'는 지난 6월 출시된 최신 모델로 세련된 디자인과 강화된 주행 안전성 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해 큰 인기를 끌고 있음. 시는 올해 총 50대의 수소승용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행사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를 확대하고 차량 보급률을 제고할 방침 - 시민들의 수소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김제 하동 일원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 최중식 환경과장은 "수소승용차의 보급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실천 활동의 방법"이라며 수소차 보조금 34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원주기후변화홍보관, 여름방학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25.07.29)** - 원주기후변화홍보관이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초교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 태양에너지 원리와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탄소중립 개념 이해 교육, 태양광 에너지 활용 원리 소개, 빙글빙글 로봇 만들기 체험 등을 준비하여 어린이들의 환경 의식 향상에 기여 - 프로그램은 무료 교육으로 전화 신청하거나 현장접수하면 참가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임. 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기회 제공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교육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조기에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원주기후변화홍보관은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김명회 당진시의원, 의류 자원순환 정책이 탄소중립도시의 필수라고 강조 (2025.07.29)** -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이 헌옷으로 대표되는 의류 폐기물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과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촉구. 29일 당진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류 폐기물 문제를 단순한 폐기 관리 차원이 아닌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 김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연간 폐의류 발생량은 10만6000톤으로 2018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의류는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물과 에너지가 소모되며 폐기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지적. 환경부가 의류 환경협의체를 통해 제도 마련에 착수했고 국회도 재고 의류의 소각·매립 금지, 재활용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소개 - 구체적 정책으로 의류수거함의 체계적 관리와 접근성 개선, 자원순환과 지역경제 연결 기반 마련을 제시. 김 의원은 “헌옷은 더 이상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자원이고 도시가 함께 순환시켜야 할 공적 자산“이라며 “당진시가 의류 자원순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실행하여 진정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상반기 AI 일자리 매칭 8.7만명 취업으로 월급도 더 높아 (2025.07.24)** - 올해 상반기 고용노동부의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통해 8만7212명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수치. 구직자가 고용24 플랫폼에 입력한 이력서·경력·자기소개서 등을 AI가 분석해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자동 추천한 결과 총 45만3319명이 입사지원을 했고 이 중 8만7212명이 취업에 성공 - AI 매칭을 통해 취업한 이들의 고용보험 기준 월평균 임금은 개인이 일반 공고에 자력으로 입사 지원해 취업한 이들보다 약 12만원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취업 직종은 경영·사무·금융직과 연구·공학 기술직이었음.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AI 추천이 유의미한 임금 경쟁력까지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 - AI 기반 진로상담 서비스 ’잡케어’도 이용이 급증해 올 상반기 기준 잡케어 보고서 생성 건수는 27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 증가. 특히 20대 이하가 전체 이용자의 90%를 차지해 청년층 수요가 압도적이었으며 노동부는 오는 9월부터 지능형 직업심리검사, 취업확률모델, AI 직업훈련 추천, 구인공고 AI 작성 지원 등 AI 기반 신규 서비스 4종을 고용24 플랫폼에 추가할 예정
	□ **김원이 산자위 간사, AI 산업대전환·지산지소 RE100 산단 동시 추진 (2025.07.24)** -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호남지역 등에 RE100 산단을 조성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산자위는 AI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대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사회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을 다루게 될 전망 - 김 의원은 “AI 강국을 위해 에너지전환 문제는 필수적“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중심지가 될 호남 지역을 AI특구 형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힘 - “’지산지소’ RE100 산단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실현하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이번 정기 국회 안에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한성숙 중기부 장관 취임, 디지털·AI로 진짜 성장 설계하며 소상공인 회복 최우선 (2025.07.24)** - 한성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디지털과 AI를 통한 중소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소상공인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함. 한 장관은 세종시 중기부 어울림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기부가 국가경제와 미래를 책임지는 부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AI·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지금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진단 - 앞으로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강화,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지원, 벤처 4대 강국 도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지역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제시했으며 디지털·AI 정책과 관련해선 “스마트공장을 ’도입’에서 ’내재화’로 전환하고 AI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네이버에서 여성 최초 CEO를 지낸 한 장관은 디지털·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대표적 1세대 벤처인으로 꼽히며 창업 생태계와 관련해 “벤처 30년, 모태펀드 20년을 맞은 올해를 새로운 벤처 창업 붐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연기금 등 민간자금 유입 확대, 벤처투자 인프라 재정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함. 중소기업중앙회는 “한성숙 장관이 네이버 등 IT산업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에 주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힘
지자체	□ **하남시, AI 기반 불법통행 단속관리 주민참여조직 스스로해결단 출범 (2025.07.24)** - 하남시가 AI 기반 불법통행 오토바이 단속관리 서비스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조직인 ’스스로해결단’의 발대식을 개최.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해결 공모사업’에 시가 최종 선정되며 추진되는 것임 - 미사동은 최근 10년 사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공원 이용이 크게 늘었고 배달 오토바이 등 일부 차량의 무단 진입으로 보행자 안전과 공원 환경 훼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시는 AI 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감지, 경고 방송, 위반 정보 기록 및 단속 증빙까지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섬 - 스스로해결단은 주민 8명을 포함해 전문가 4명, 공무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10월까지 미사숲공원 일대의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구축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음. 이현재 시장은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 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풀어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인천시, 주안·부평산단 AI 실증산단 구축 본격 추진 (2025.07.24)** - 인천시가 주안·부평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발표.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이번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협력 체계 구축 차원으로 시는 이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실질적인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주요 협력 내용은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 제조 역량 강화, AI 전환 실증산단과 가상공학 플랫폼 연계, 공정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및 교육 무상 제공,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 협력 등 - 시는 이들 협력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 가상공장 실증 플랫폼 구축,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첨단 제조혁신 기반을 조성할 방침. 협력사업이 추진되면 주안·부평 산업단지 내 약 3천여 개 기업과 2만3천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형 산업 구조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정성주 김제시장, 피지컬 AI 농업관련 산업에서 김제가 최적지라고 주장 (2025.07.24)** - 이재명 정부들어 피지컬 AI 산업 기술과 투자가 정책기조화 된 가운데 김제시가 공덕면 옛 김제공항부지를 '피지컬 AI 농업 로봇산업 구현 최적지'로 내세우며 정부 사업을 제안하고 나섰다고 발표.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지컬 AI 기반 인공지능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김제시의 전략적 입장과 참여 의지를 밝힘 - 시에 따르면 시는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로 조성될 옛 김제공항부지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지능형 필드로봇 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특장차 클러스터 등 피지컬 AI와 접목 가능한 다양한 농업관련 AI산업 인프라를 이미 확보하거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 농작업에서 파종, 시비, 방제, 수확을 로봇이 대행할 수 있는 실증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 - 정 시장은 "김제는 농업과 제조업이 공존하는 이중 산업구조를 가진 도시로서 농생명 AI와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을 동시에 실증과 상용화할 수 있는 유일한 거점"이라며 "AI 기반 국가 산업전환의 퍼스트무버로서 전북자치도와 김제가 다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자체	□ **서울 119 신고, AI 콜봇이 즉시 처리 (2025.07.24)** - 서울시가 앞으로는 대형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119 신고가 폭주하더라도 통화 연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인공지능 콜봇'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발표. 긴급 상황에서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울시는 AI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을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힘 - 기존 119 시스템은 총 720개 회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동시 통화가 몰리면 통화량 초과로 ARS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한계가 있었음. 이번에 도입된 AI 콜봇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240건의 대기 신고를 동시에 음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콜봇은 신고자로부터 음성을 통해 사고 유형과 위치 정보를 상담받고 위험도를 판단해 긴급한 경우에는 접수 요원에게 우선 연결 - 특히 다수의 신고가 한 지역에서 유사하게 접수될 경우 화재와 붕괴 등 복합 재난의 가능성도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음. 시범 운영 4개월간 AI 콜봇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1434건이며 이 중 긴급으로 분류돼 접수 요원이 대응한 건수는 2250건으로 실시간 분류와 대응에서 AI 콜봇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서울시는 평가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수자원공사, EU 호라이즌 유럽 탄소중립도시 과제 수행 (2025.07.30)** -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유럽연합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과 연계한 국토·교통 파트너십 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분야 과제를 수행. '건축 환경에서의 청정에너지 통합' 과제로 건물을 에너지 소비 공간에서 벗어나 스스로 전기를 생산·저장·공유하는 에너지 자립형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 과제는 2026년부터 3년간 진행되며 K-water는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플랫폼 개발과 실증을 주도. 실증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빌리지에서 이뤄지며 태양광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 누수감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이미 적용된 미래형 주거단지에서 진행 - 안정호 K-water 그린인프라부문장은 "도시는 이제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나누는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절감과 탈탄소 솔루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힘
	□ **전기안전공사, 반바지 출근 캠페인으로 탄소중립 실천 (2025.07.29)**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바지 출근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발표.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함께 냉방기 사용을 줄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캠페인 슬로건은 '반바지 출근, 바꾸는 일상 지키는 지구'로 정함 - 전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인증샷을 공유한 본부 중 최다 참여부서에 커피차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개최. 참여는 자율이며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해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짧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 운동복 등은 제한됨 -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통한 환경보호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기보, M&A · 탄소중립 전략 모색 및 호우 피해 지원 워크숍 개최 (2025.07.24)** - 기술보증기금이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호우 피해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 본사에서 '2025년도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 이번 워크숍은 현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기보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어 새 정부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인수합병 사업 추진현황과 기업승계형 M&A 지원전략 등을 논의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K택소노미 자가진단 시스템, 집중 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신속 지원 방안, AI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와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 기보는 지난 5월 AI · 반도체 · 탄소중립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AI · AI 전환 우대보증을 출시 - 하반기에는 탄소가치평가와 한국형 녹색기술분류체계인 K-택소노미평가를 전담할 '녹색기술금융센터'를 신설 예정.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과 기보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힘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생성형 AI가 직업상담하는 시대 도래 (2025.07.24)** - 한국고용정보원이 생성형 AI 기술이 공공 고용서비스에도 본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 기관은 ChatGP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직업상담 개념검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을 실증했으며 직업상담 시범 모델은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학습한 뒤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작동 - 해외 주요 국가들도 공공 고용서비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OECD에 따르면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은 공공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챗봇 기반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직업훈련 추천, 고용주-구직자 매칭 자동화 등 다양한 기능에 AI 기술을 활용 중.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핀란드는 고용청 산하 서비스에 챗봇을 도입해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Find a job' 플랫폼은 자기소개서 코칭 기능까지 연계함 -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과 함께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병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고용서비스 상담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AI 응답의 정확도뿐 아니라 편향성과 보안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라고 강조
	□ **화학·금속·세라믹·섬유 데이터 표준화로 AI 기반 소재 개발 속도 향상 (2025.07.24)**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소재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을 위해 '소재 실험 데이터' 양식을 표준화 추진. 소재 실험 시 생성되는 데이터의 공통 구조와 수집 양식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 - 이번 KS는 화학·금속·세라믹·섬유 등 4개 소재 분야 개발 과정이 '조성-공정-물성' 3단계로 구분돼있으며 원료명, 투입량 등 총 60개의 데이터 구조 및 항목이 표준화됨. - 또 각 단계별 필수 입력값과 단위, 데이터 유형 등이 정의돼 실험 조건과 측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소재 기업은 이 표준을 활용해 고품질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최적의 원료 조합 및 공정 조건을 도출할 수 있음
지방기관	□ **GICON, 생성형 AI 실무 제작 워크숍 성료 (2025.07.24)**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AI 활용 실무제작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발표. 이번 워크숍은 광주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고 약 50명이 참석 - 참가자들이 직접 이미지 생성형 AI 툴인 미드저니, 런웨이, 디자인 등을 활용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캐릭터 및 세계관의 일관성 유지 전략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음 - 실무 현장에서 AI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던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음. AI기반 창작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실제 사례 중심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로 현업 종사자들이 창작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앞으로도 창작자들이 기술과 창의력을 융합해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탄소중립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LG, 탄소중립과 자연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며 ESG 경영 강화 (2025.07.28)** - LG가 자연 생태계 복원과 탄소중립 실천을 앞세우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음. LG상록재단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화담숲 인근 정광산에 ’토종 꿀벌’ 서식지를 조성하며 김대립 명인과 사회적 기업 비컴프렌즈와 손잡고 토종 꿀벌 보호·증식 사업을 펼치고 있음 - 토종 꿀벌인 ’한라 토종벌’ 100만 마리를 시작으로 200만 마리, 400만 마리 등 2027년까지 매년 개체 수를 2배 이상 증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국내 꿀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밀원 식물의 수도 늘리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LG 넷제로 특별보고서’를 내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 - 2023년 약 425만t의 탄소를 감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축구장 약 10만6000개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을 조성한 것과 같은 효과. LG디스플레이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제거, LG화학의 수소연료 활용 통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 등으로 약 105만t의 탄소를 감축했으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76%, 2040년 89%, 2050년 100% 등 점차 높여갈 방침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

☞ AI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최태원 SK그룹 회장, AI 올인으로 글로벌 협력 미래성장동력 확대 (2025.07.24)**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은 인공지능 사업 강화를 위한 경영 행보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있으며 특히 AI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그룹의 AI 경쟁력 극대화에 주목.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를 방문해 샘 올트먼 CEO와 단독 회동하며 AI 분야의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 -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AI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아마존웹서비스와 협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100MW급 AI 데이터센터를 울산에 건설하겠다고 발표.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엔비디아 등 주요 AI 기업에 HBM을 공급하며 AI 시대의 필수적인 두뇌 역할 수행 - 최태원 회장은 “AI 시장의 대확장이 2027년 전후로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SK그룹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AI를 통해 글로벌 스케일로 성장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
	□ **현대차, AI가 직접 기사 쓰는 나무 특파원 공개 (2025.07.24)** - 현대자동차가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 ’아이오닉 포레스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산림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진행 - 나무 특파원은 지난 6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 2025에서 디지털 크래프트 부문 금사자상 2개, 은사자상 1개를 수상하며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세계적으로 입증받음 - 전세계 13개 국가 중 한국, 브라질, 체코의 숲에 식재된 나무의 건강 상태, 토양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트래커를 설치한 후 세계 최대 기상데이터 제공 기업 ’더 웨더 컴퍼니’ 등 공공 정보망을 통해 각국 아이오닉 포레스트의 기후 데이터를 수집. 수집된 데이터는 AI를 기반으로 한 대형 언어모델을 활용해 ’인간의 언어’로 변환되고 나무가 직접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보존의 중요성을 언론에 기고하는 듯한 기사를 작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데이터센터 냉각, 반도체 장비 등 AI 후방 산업 선점 나서 (2025.07.24)** - 테크 기업들이 AI 후방 산업을 공략하고 있다고 발표. AI 후방 산업은 실제 기업이나 소비자가 쓰는 AI 모델의 개발·운영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이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들 수 있음 - LG전자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가 중동 지역에 건설 중인 800메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에 칠러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AI 붐으로 세계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건설되면서 칠러를 포함한 LG전자의 냉난방공조 사업은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고 있음 - AI 데이터센터를 식히는 냉각 기술은 AI 후방 산업 생태계의 큰 축 중 하나로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AI 칩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발열도 커져 열을 잡는 기술이 필수적.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221억3000만달러였던 데이터센터 냉각 시장 규모는 2030년 561억5000만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들도 이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음
	□ **설립 1년만에 구글·알리급 AI 개발한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 (2025.07.24)** - 인공지능 스타트업 트릴리온랩스가 고차원적 언어 이해와 복잡한 문제 해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모델 Tri-21B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발표. 이번 AI 모델은 불과 십여 명의 임직원들이 개발했지만 성능 면에서 구글과 알리바바의 모델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트릴리온랩스는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소버린 AI' 구현에 나선다는 전략임 - Tri-21B는 전작 Tri-7B보다 파라미터 수를 3배 이상 확장한 210억 개 규모로 GPU 1개 단위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량성과 효율성을 갖춤. 종합지식에서 77.62점을 기록했는데 구글 젬마3-IT-27B 모델과 알리바바 큐원3-32B와 필적했으며 한국어 언어 이해, 수학, 코딩 등 고난도 추론 중심 평가 지표에서도 글로벌 테크 기업의 중형 모델과 견줄만한 성능을 나타냄 - 트릴리온랩스는 '언어 간 상호학습 시스템'을 통해 모델 개발·학습 비용을 12분의 1로 절감. 재민 트릴리온랩스 대표는 "트리-21B는 플라이휠 구조를 통해 70B급 대형 모델의 성능을 21B에 효과적으로 전이해 모델 사이즈와 비용, 성능 간 균형에서 현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구현했다"고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NOL, 애피어와 손잡아 광고 효율성 향상으로 AI 고객 맞춤 타겟팅 (2025.07.24)** - 글로벌 인공지능 광고·마케팅 솔루션 기업 '애피어'가 국내 여가 플랫폼 NOL과 협업해 광고 효율과 매출에 의미 있는 성과를 취득. NOL은 애피어의 아이비드와 리타겟팅 솔루션을 도입해 초개인화 추천 등으로 매출을 늘리고 있으며 아이비드는 애피어의 독자 AI 모델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타겟팅을 최적화해 대규모로 고가치 사용자를 획득할 수 있음 -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용자를 찾아내고 사용자의 관심사나 이용 환경을 분석해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고가치 고객을 효과적으로 확보함. 리타겟팅 솔루션은 고가치 사용자를 정밀하게 식별하고 세분화해 구매 전환을 극대화하는 솔루션으로 구매 이력, 이용 빈도, 앱 방문 여부, 상품 페이지 유입 여부 등 다양한 고객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유저를 분류하여 타겟팅을 진행함 -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조회 대비 구매율을 71%까지 끌어올렸으며 신동한 NOL 퍼포먼스 마케팅 리더는 "앞으로도 애피어와 동행하며 마케팅 역량을 한층 고도화해 더 큰 성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금고리조트 아시아나CC, AI드론 도입 등 친환경 골프장 도약 (2025.07.24)** - 금고리조트가 운영하는 명문 회원제 골프장 '아시아나컨트리클럽'이 친환경 전략을 본격화했다고 발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AI 드론, 친환경 미생물 제제를 도입하는 등 친환경 골프장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써왔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스 운영에 기술 기반의 친환경 솔루션을 더해 레저와 환경,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골프장으로 도약한다는 방침 - 아시아나CC는 AI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 코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드론 활용 정밀 방제는 물론 드론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잔디 생육 상태, 배수 불량 구간, 이종 잔디 분포 현황 등 코스 전반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관리. 이를 통해 농약 사용량 30% 감소, 물 사용량 절감, 작업 시간 50% 단축 등의 운영 효율성과 친환경 효과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나CC 코스 관리 직원의 29%가 드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 -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제 활용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미생물·식물성 제제 16종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2023년 8종보다 두 배 많은 수치. 또한 자연 생태계 관리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녹지율이 61.8%에 달하고 인공 습지와 생태 통로를 조성해 법정보호종, 산림청 지정 희귀 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체 생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 동식물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에도 적극적으로 힘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영산대, AI 창업 교육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2025.07.24)** - 와이즈유 영산대학교가 창업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창업 교육 실시. 이 교육은 ㈜아이씨티 최낙준 대표를 초청해 양산캠퍼스 성심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영산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중장년기술창업센터와 그린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창업 교육을 마련 - 이날 강연에서는 카이스트 공학박사인 최낙준 대표가 챗지피티 등 AI 도구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시장 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입주기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여석호 창업지원단장은 “앞으로도 AI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비즈니스 모델 검증, 네트워킹・멘토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지식재산권 교육과 세무교육을 추가해 입주기업과 예비창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힘
	□ **순천향대, K-ICT기업인연합회와 AI의료융합 산업 발전 협약 (2025.07.24)** - 순천향대가 K-ICT기업인협회와 ’AI의료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K-ICT기업인협회는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400여 개 ICT/SW 회원사를 보유한 기업 연합체로 ICT 산업 기반 스타트업 발굴과 기업 간 협업, 공공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충남 IT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의료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 특히 지역의 AI의료융합 스타트업 육성과 기업 성장지원 및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AI의료융합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며 협회 전문 인력의 교수요원 활용 방안도 모색하기로 함 - 송병국 총장은 “AI의료융합 분야에서 공동의 시너지를 발휘해 글로벌 수준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연병 협력 생태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지역 AI의료융합 산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해외	□ **백악관, 미국 AI주도권 유지위한 AI행동계획 발표 (2025.07.24)** -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서 ’안전성’보다는 ’중국에 대한 우위 강화’에 우선을 두고 미국내 AI개발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에너지 공급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발표. 백악관에서 ’AI행동계획’을 발표하여 미국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해외	내 AI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주가 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환경 기준을 간소화할 것을 권고 - 미국 기술을 전 세계 AI의 기반으로 삼는 동시에 중국과 같은 적대국의 우위를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연방 정부는 AI 신기술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함. 에너지 소모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관련해 기존 에너지망을 안정화하고 송전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전략 실행을 권고 - 2035년까지 데이터 센터는 전체 미국 전력 수요의 8.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3.5% 정도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며칠 만에 바이든 대통령 시절 '안전한 AI'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안전 시험 요건을 설정하고 주요 AI 개발업체에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화했던 2023년 행정명령을 철회했으며 대신 6개월내 AI 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수립하도록 지시
	□ **머스크, AI에 총력으로 xAI 5년 내 H100급 5000만개 가동 목표 (2025.07.24)**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설립한 AI 스타트업인 xAI의 챗봇 '그록'의 성능 향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발표.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xAI의 목표는 5년 안에 H100급에 해당하는 AI 연산 유닛 5000만개 규모를 온라인으로 가동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력 효율은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앞서 머스크는 미국에 건설 중인 xAI의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의 내부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으며 "GB200 3만개를 포함해 GPU 23만개가 그록을 학습시키기 위해 '콜로서스1'이라는 단일 슈퍼클러스터에서 가동 중"이라며 "콜로서스2에서는 학습용 GB200과 GB300 55만개 중 1차 물량이 몇 주 뒤 온라인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설명 - 머스크는 "젠슨 황이 말한 대로 xAI는 속도 면에서 누구와도 경쟁이 안 된다"며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해 한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으며 해당 영상에서 황 CEO는 xAI의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언급하며 "xAI는 다른 모두가 1년은 걸릴 일을 19일 만에 해냈다"고 말함. 머스크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따라잡기 위해 xAI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가 xAI에 2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세계가 반한 한국판 소버린 AI로 AI 3대 강국에 더 가까워져 (2025.07.24)** -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 선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국내 AI 기업들의 주요 AI 모델이 해외에서 유수의 AI 모델에 뒤지지 않는 성과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고 발표. LG AI연구원이 공개한 추론 특화 모델 '엑사원 딥', 병리 이미지 분석 모델 '엑사원 패스 2.0', 언어 생성과 추론 모델이 결합한 '엑사원 4.0' 모두 미국 에포크 AI의 '주목할 만한 AI 모델'에 선정 - 국내 AI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도 글로벌 AI 분석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지능지표에서 58점을 받아 모델 기준 전체 12위에 오르며 중국의 딥시크 V3, 프랑스의 미스트랄 스몰 등을 제쳤고 기업 기준 8위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10대 프런티어 모델 개발사'로 선정되어 오픈AI·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와 어깨를 견줌 - 네이버클라우드가 상업용 오픈소스로 내놓은 '하이퍼클로바X 시드'는 AI 플랫폼인 허깅페이스에서 누적 다운로드 수 131만 6000회, 최근 한 달 내 다운로드 수 60만회를 기록하며 전체 모델 상위 0.02%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NC AI의 오픈소스 모델 '바르코 비전 2.0'은 비전-언어모델 분야에서 최고 성능을 인정받음
	□ **올트먼, AI 악용해 사람 사칭하는 사기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 (2025.07.24)** - AI를 악용해 사람을 사칭하는 사기 행위가 급증할 것이라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경고함. 올트먼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열린 '경제 및 사회적 AI 영향' 관련 행사에서 "금융기관 중 일부는 여전히 음성 인식을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큰돈을 이체하거나 중요한 작업을 승인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 - AI가 인간 음성을 거의 똑같이 흉내 내거나 복제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음성 인식 등 기존의 인증 수단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것으로 그는 "AI는 이미 대부분의 인증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했다"며 "지금은 AI를 악용한 음성 통화로 사기 행위를 하는 수준이지만 곧 현실과 구별이 불가능한 영상 통화까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 - 실제로 이런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AI로 어린이 목소리를 복제해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부모를 속여 돈을 요구한 사건이나 유명 인사의 영상·음성을 복제한 피싱 사기도 이어지고 있음. 올트먼은 오픈AI가 사칭 도구를 만들고 있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AI 시대에 '인간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각 개인의 홍채를 스캔하여 고유한 ID를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기타	□ **AI 교육은 선택 아닌 필수, 직장인 평균 구매 금액 29만원 (2025.07.24)** - 데이원컴퍼니의 실무 교육 브랜드 패스트캠퍼스에 따르면, AI가 필수 학습 도구로 자리잡으며 AI 교육에 대한 인식과 학습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AI 교육 콘텐츠의 1인당 평균 구매 금액은 295,311원으로 2023년 235,334원 대비 25% 상승했으며 이는 개별 강의 가격 상승이 아닌 수강생 1인당 구매 강의 수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임 - 교육 콘텐츠 구매 및 학습 패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어 AI 교육과 비AI 교육을 함께 수강하는 비율도 2023년 20.2%에서 2024년 37.7%로 증가하며 AI 기술이 전문 영역을 넘어 기존 업무 역량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줌 - AI 교육 콘텐츠는 학습 몰입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1위를 차지한 업스테이지와 함께 하는 글로벌 OpenLLM 리더보드 1위 모델 리뷰&LLM 모델 Fine-tuning 강의는 압도적인 완강률로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음. 이강민 데이원컴퍼니 대표는 “2024년을 기점으로 AI 학습에 대한 태도가 호기심에서 생존 전략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며 “AI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콘텐츠 기획부터 론칭까지 속도를 단축하고 실무형 커리큘럼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함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